

# 기본소득은 여성의 해방에 기여할 수 있는가?

⋮

최유미 수유너머104 연구원

## 1. 쓰디쓴 패배, 스위트 홈

기본소득은 여성의 해방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기본소득은 기후격변으로 위기에 처한 복수종의 좋은 삶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여성의 해방과 복수종multispecies의 좋은 삶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 글은 이 물음들에 관한 것이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홈페이지는 “기본소득이란 모든 사회구성원의 ‘적절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정치공동체가 모든 구성원에게 개별적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sup>1)</sup> 정의한다.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이 기본소득이라면 이 돈이 여성에게 더 특별한 가치가 있을까? 게다가 인간이 아닌 복수종의 삶에 그것은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적어도 기본소득은 취약한 삶을 사는 여성들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이 되어 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것은 이러저러한 기존의 복지 정책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조건 하에서의 이야기다. 안전장치가 하나 생겼다고 여성해방 운운하는 것은 과한 일이겠지만 모든 여성에게 정기적으로 일정한 소득이 생긴다는 것, 더욱이 노동과 무관하게 그것이 생긴다는 것은 숙고할 가치가 있다. (물론 모든 남성들에게도 생기는 소득이지만 그들의 일은 그들이 알아서 생각하라고 두자) 왜냐하면 여성의 삶이 극도로 취약해진 것은 자신의 생계를 전적으로 남성 가장에게 의존하는 핵가족, “스위트 홈”이 생기고 나서부터이기 때문이다.

남성 가장을 중심으로 그 배우자와 직계 식솔들이 한 집에 거주하는 이른바 ‘핵가족’모델은 근대 부르주아의 발명품이고 그런 생활양식이 하층민으로 확산된 것은 무자비한 폭력을 통해서였다. 우리는 통상 사회적 구속에 대한 개인의 승리로 근대를 평가하지만 역사학자 아리에스는 “승리한 것 그것

1)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홈페이지

은 개인주의가 아니라 가족<sup>2)</sup>이라고 쓴다. 부르주아는 자신들의 계속성과 자본주의의 계속성을 위해 새로운 형태의 삶의 양식, ‘스위트 홈’이라는 것을 발명한 것이다. 이런 가족모델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후손(아들)이 전문 직업인이 될 수 있도록 온갖 투자를 아끼지 않았고, 이를 위해 “수동적이고 순종적이고 알뜰하고 말이 적고 항상 바빠 일하고 순결한 여성이자 아내라는 모형<sup>3)</sup>이 만들어졌다.

『3기니<sup>4)</sup>』에서 버지니아 울프(Virginia Woolf)가 자신과 같은 계층의 여성을 지칭하기 위해 “부르주아의 딸” 대신 “교육받은 남성의 딸”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 여성들의 남자 형제에게는 고등교육을 받아 전문직을 획득할 수 있도록 많은 돈이 투자되었지만 자신들은 교육이나 환경면에서 전혀 부르주아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 교육받은 남성의 딸들은 부르주아 경제를 떠받치는 또 하나의 자원이었다.

그 유명한 엔클로저를 통해 도시의 부랑자가 된 하층민과 프롤레타리아트가 이런 가족 모델을 따라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 불안정한 삶을 사는 그들에게 자식은 전혀 보험이 될 수 없었고 남성 가장 혼자 식솔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도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와 교회의 강제력을 통해 혼전 성관계나 혼외 성관계는 범죄로 처벌되었고 낙태죄가 신설되었으며 이전에는 이단을 척결하는 수단이었던 마녀사냥이 여성들의 임신출산 통제력을 순치(馴致)시키는데 사용되었다. 마녀사냥의 가장 흔한 죄목이 영아살해였다는 것이 이를 시사한다.

여성들은 공유지를 중심으로 하는 촌락 공동체에서 나이 많고 현명한 여성들을 통해 비교적 안전한 낙태술과 피임법을 전수받아 임신출산의 부분적인 통제력을 가지고 있었고, 양육에 있어서도 공동체를 통한 공동의 돌봄이 가능했다. 엔클로저와 마녀사냥은 이 모든 것을 철저히 파괴했다. 이제 여성들은 공유지 중심의 촌락공동체에서 뺏겨져서 자본주의적 가부장제의 개별 가정에 고립된다. 이들의 임무는 노동자를 재생산하는 무상의 노동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실비아 페데리치를 비롯한 페미니스트들은 마녀사냥이야말로 자본주의의 시초축적이라고 주장한다.

자신의 생계를 남성 가장에게 의지하는 ‘스위트 홈’은 수많은 여성을 불태워 죽이고 나서야 비로소 만들어질 수 있었고, 그것은 여성을 더욱 취약한 위치로 떨어뜨렸다. 이것은 여성들의 쓰디쓴 패배다. 이에 페데리치는 오늘날의 여성들 삶과 장원경제의 여성 농노를 비교하면서 “여성 농노는 후일 자본주의 사회의 자유로운 여성보다 남성 친족에게 덜 의존했고, 육체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덜 차별받았으며, 남성의 필요에도 덜 종속되었다<sup>5)</sup>”고 쓴다. 여성의 경제적 의존성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는 여성의 경제적 독립성을 박탈한 이후에야 원활하게 가동될 수 있었고, 그것은 여성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었다.

2) 이진경, 『근대적 주거공간의 탄생』, 그린비, 2007, 310쪽(재인용).

3) 실비아 페데리치, 『캘리번과 마녀』, 황성원, 김민철 역, 갈무리(2017), 168쪽.

4) 버지니아 울프, 『3기니』, 세계문학전집 130, 민음사, 2006; 『3기니』는 한 신사가 울프에게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편지를 보냈다고 설정하고 그에 대한 답신을 쓴 에세이다.

5) 실비아 페데리치, 51쪽

## 2. 여성의 돈

『3기니』에서 버지니아 울프는 신사에게 이렇게 말한다. “게다가 우리는 둘 다 생계비를 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개의 점은 우리 사이의 간극을 나타냅니다.”<sup>6)</sup> 울프는 그 심연이 너무 깊이 패어 있어서 그것을 가로질러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 3년이 넘도록 답신을 보내지 못했다고 쓴다. 울프의 이 진술에 오늘날의 남성들은 반감을 가질지도 모른다. 대학교육은 시험을 통과하고 등록금을 낼 수 있으면 성별 계층에 관계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고, 전문직에서 여성의 비중은 현저히 높아졌으며 명시적인 임금차별은 법으로 금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데이터는 다른 것을 말한다. 2017년 OECD 회원국의 성별 빈곤률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코로나 19의 여파로 경제가 심하게 위축된 2020년 2분기 국내 남성의 실업건수는 16만인데 비해 여성의 실업건수는 25만이었다.<sup>7)</sup> 여성들의 일자리가 훨씬 취약하기 때문이다. 그들과 우리 사이에는 여전히 깊은 심연이 있다. 울프가 지적했듯이 우리 중 일부는 저 교육받은 남성들의 행렬 뒤를 어슬렁거리며 따르고 있거나 혹은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행진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은 가장의 생계비를 벌충하느라 불안정한 고용시장을 전전하고 있다.

『3기니』에서 울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낸 신사는 교육받은 남성의 딸이 전쟁방지를 위해 일정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믿기에 편지를 보냈을 것이다. 생계비를 벌지 않는 주부나 교육받은 남성의 딸은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전쟁방지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신사의 요청에 울프는 우선 1기니를 여자 대학의 재건에 쓰겠다고 답한다. 그리고 그것이 전쟁 방지라는 대의에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길게 설명한다.

처음에 울프는 기부자의 당연한 권리로서 1기니의 용처에 대한 조건을 붙이려고 했다. 울프가 보기에 전쟁방지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새로운 대학은 기존의 낡은 대학과는 아주 달라야 했기 때문이다. 젊고 가난한 이 대학은 “부자와 가난한 자, 똑똑한 자와 어리석은 자라는 하찮은 차이로 구분되지 않고, 온갖 부류의 다양한 차이를 가진 마음과 몸과 영혼이 만나서 협력하는 곳”이어야 하고, “학문 그 자체를 추구”하고 “학위도 없고 강의나 설교도 하지 않는” 곳이어야 전쟁방지라는 대의에 부합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울프는 학위가 없으면 여성이 직장을 구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받아들인다. 우선 자신의 생계비를 벌 수 있어야 여성이 “순결한 여성이자 아내”를 위한 자원으로 되돌아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들에게 이것은 딜레마가 아닐 수 없다. 생계비를 벌기 위한 여성들의 각고의 노력은 결국 기존의 파괴적 질서에 자신을 편입시키는 것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자본주의적 가부장제 안에서 닥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 기회균등을 위한 여성들의 싸움 덕분에 우리는 교육 받을 자유를 얻었고. 적지 않은 여성들이 남성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스위트 홈에 포섭되지 않으려 저항했던 교육받지 않은 여성들, 불에 타 죽은 마녀들을 잊어버렸고, 그 결과 가족이라는 자본주의 재생산

6) 버지니아 울프, 177쪽

7) 『월간 노동리뷰』, 2020년 8월호, 87-88쪽

체제가 우리에게 무엇을 알아갔는지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지 못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외친 기회 균등이 무엇을 위한 기회인가를 진지하게 묻지도 못했다.

울프는 조건 없이 1기니를 여자 대학의 재건에 투자할 것이 아니라 당초에 울프가 생각한 대로 자신의 1기니를 기존의 질서에 복무하는 대학을 불태워버릴 ‘닝마, 가솔린, 성냥’을 사라는 조건을 달아야 했다. 그랬으면 교육받은 남성의 딸들은 교육받은 남성들의 뒤를 따르는 것을 해방이라 여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랬다면 교육받은 남성의 딸들은 교육받지 않은 딸들인 불에 타 죽은 탄 마녀들과 그들의 복수종 반려들의 일과 놀이를 ‘기억(remember)’하고 그들과 ‘다시 멤버(re-member)’가 되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교육받은 남성의 딸인 울프도 울프의 딸들인 우리도 생계비를 버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하고 그 대가는 크다. 울프 자신이 그토록 끔찍하게 생각했던 부르주아 가족은 생계비를 벌려고 고투하는 여성들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스위트 홈으로 포장되어 노동에서 여성의 차별을 교묘하게 정당화했고, 옛 여성들, 마녀들이 그들의 복수종 반려들과 함께 만든 동맹의 그물망은 대부분 끊어지고 말았다.

### 3. 기본소득을 위한 사변적 우화

기본소득이 이 답답한 구도를 깰 수 있을까? 그것이 ‘스위트 홈’을 불태워버릴 수 있을까? 2020년 우리나라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비혼인구가 5년 전에 비해 30만 명이 늘어났고, 여성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비혼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트 홈’의 신화에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자신의 생계비를 안정적으로 벌 수 없는 저학력 여성에게 비혼은 아직 먼 이야기이고 결혼을 하건 하지 않건 노동에서 한 번도 놓여나지 못한다. 가족을 위한 무상의 노동을 제공해야 하고, 부족한 생계비를 벌충하기 위해 불안정한 일자리를 전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무능력을 증명하지 않아도 개개인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이 이들을 전혀 스위트 하지 않은 ‘스위트 홈’ 바깥으로 불러낼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나 기본소득은 자본주의의 상품경제를 돌아가게 하는데 쓰일 공산이 크다. 또한 그 때문에 기본소득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크다. 모든 가구에게 지원된 재난지원금의 정당화 논리는 경제 활성화였고, 잠시지만 그 효능을 체감하기도 했다. 그러나 1회성이거나 이벤트성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이 지속적으로 지급된다면 우리 여성들이 스위트 홈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시도해볼 틈이 열리는 것 아닐까? 가령, 울프가 진정으로 소망했던 젊고 가난한 대학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기술이나 토지나 자본을 획득하는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복수종과의 협력과 돌봄을 배워온 온 세상 마녀들의 비법을 가르치는 학교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노동에 특권을 부여하는 도덕주의자들은 기본소득이 사람들을 빈둥거리게 할 거라고 걱정한다. 그러나 우리는 일과 노동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생계를 꾸리는 모든 일을 임노동으로 환원하기 위해 복수종의 협력적 동맹으로 만들어진 공유지가 몰수되었고 수많은 여성들이 불태워졌다. 이와 더불어

여성들이 생계를 꾸리기 위해 복수종과 함께 해온 일과 놀이 또한 파괴되었다. 이를 잊지 않는 것은 중요하다. 여성의 해방은 복수종의 풍요와 따로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만들어야 할 세상은 무한한 풍요와 제한 없는 자유가 있는 우리만의 세상이 아니라 복수종과 부분적으로 공유 가능한 세상이고 이를 위해 우리는 유한한 풍요와 한정된 자유를 얻기를 원한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 위기는 자본의 이익추구를 위해 동원되거나 삭제되었던 비인간 복수종이 그들의 존재를 드러내는 사건이다. 그들은 다시 동맹의 그물망을 만들기 시작했고 우리가 다시 살기 위해선 이 동맹의 그물망에 참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스위트 홈’을 태워버릴 ‘녕마, 가솔린, 성냥’을 마련하는 것이다. 노동자를 재생산하는데 모든 것을 갈아 넣어야 하는 스위트 홈이 불타버린다면 우리는 다른 삶을 일굴 수 있을 것이다. 노동력을 팔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기본소득은 ‘스위트 홈’을 태워버릴 ‘녕마, 가솔린, 성냥’을 마련하는데 쓰여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과는 다른 방식의 일과 놀이로 생계를 해결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하지만 기본소득을 쟁취해 낸다고 해도 정부에만 기대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알다시피 그들은 쉽게 배신한다. 그 때문에 기본소득은 우리가 다른 삶의 방식을 실험하고 정착시키는 시간을 버는 용도로만 짧게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 빨리 쟁취하자. 그러나 우리의 이 기획은 비밀로 하자. 기본소득은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이고, 당신들이 좋아하는 노동의 유연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크게 떠들면서 지금과는 다른 세상을 차근차근 준비를 해보자. 그러면 억울하게 불타 죽은 마녀들도 함께 일어나 춤출 것이다.